

# 기후위기 시대...여성 농민들의 해답찾기



기후위기 시대 여성 농민들의 현실과 이야기를 담은 전시가 광주여성가족재단 허스토리 전시관에서 내년 3월21일까지 열린다. 전시장 곳곳에서는 호미와 낫 등 여성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구와 이들의 인터뷰가 담긴 녹음본, 논밭 사진 등을 만날 수 있다. 광목천과 타이백을 소재로 제작된 사진들은 전시가 끝난 이후 예코백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 삶의 터전'展...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

결코 평등하지 않은 기후 위기의 실태와 원인,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 위기를 제대로 관점에서 풀어낸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내년 3월21일까지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에서 기후위기 시리즈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 삶의 터전'을 개최한다.

기후위기는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등 자연 생태계의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및 건강의 악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 사회 생태계의 위기도 초래한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이지만 개인이 받는 여파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특히 부국보다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빈국, 남성에 비해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간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여성은 아이와 노약자를 돌볼 의무가 있고, 피난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와 교통, 은신처와 같

## 정유승·문선희 참여, 기후정의 실현 회복적 방안 모색 내년 3월21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허스토리전시관

은 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성보다 여성이 자연재해 사망률이 높은 데에는 여성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낮은 경제적 지위가 연관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서 성평등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이 기후 위기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현실은 여성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여성을 취약한 위치에 놓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 여성작가 2인의 눈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논의하고 기후정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회복

적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몇년 사이 이상기후의 환경적 영향으로 그들의 농작물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파종의 시기가 늦어지거나 생산량이 떨어지는 등 그간의 축적된 농업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유승 작가는 도시 '광주'의 변두리와 외곽지역의 경계 사이에 농업으로 생을 이어가는 여성농민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성농민으로서 더이상 밭을 일굴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춰 기획한 전시다.

전시실 한편에는 호미, 낫 등 여성 농민들이 사용하는 10여개의 농기구가 나란히 진열돼 있고, 정 작가가 여성 농민

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녹음돼 흘러나온다. 기후위기가 닥치면서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또 전시장 벽면을 메우고 있는 논밭 사진들은 광목천과 타이백을 소재로 만들어진 것들로, 전시가 끝날 때쯤 예코백으로 재활용된다.

내년 1월20일까지 이어지는 정 작가의 전시 이후 내년 2월1일부터 3월21일까지는 문선희 작가의 전시 공간이 꾸며진다.

문 작가는 동물 대량 살처분 그 이후의 이야기를 펼쳐낼 예정이다. 작가는 매몰지 100여 곳에서 경험한 물결한 땅, 악취 그리고 자라지 못하는 농작물 등을 통해 합리성과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현대사회를 고발한다.

재단은 '땅'과 관련, 객관적 사실 위주로 기획한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기후 변화, 전염병 등 위기에 관한 고민과 실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생태학적 삶의 관점 등을 고민하는 주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명진기자



창무극 '춘향' 공연 모습 (광주국악협회 제공)

## 풍자·해학...창무극 '춘향과 놀보'

광주국악협회 '제2회 빛고을창극제'...오늘 5·18기념문화관

광주국악협회는 13일 오후 7시 5·18 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2022 제2회 빛고을창극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판소리를 바탕으로 풍자와 해학이 담긴 이색 창무극 '춘향'과 '놀보'를 선보인다.

춘향가의 주인공 춘향·이몽룡의 사랑 이야기와 흥부와 놀부 형제의 우애 깊은 이야기를 판소리와 무용으로 각색한 화려한 무대가 펼쳐진다.

'춘향'에서는 ▲1막 '단막극 광한루에서 춘향집까지, 입제창 사랑가' ▲2막 '무용 비운, 입제창 이별가' ▲3막 '신년 맞이 서리떡분발, 입제창 십자가' ▲4막 '독학&무용 속대머리, 타악&무용 어사출동' 무대를 선보인다.

'놀보'에서는 ▲1막 '야! 이놈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2막 마당쇠 글 가르

치며 '까막눈인게 배워야지 이놈야' ▲3막 '흥보야~ 저 화초장 날 도라~' 공연을 올린다.

중앙인물로는 도창 정성심, 몸품 함승우, 춘향 이우리, 월매 김영순, 향단 류누리, 방자 정승기, 집장사령 최응식, 안태호, 놀보 장영한, 놀보처 박애화, 흥보이들 박근태, 이방 이효성, 동네사람 채춘례·고숙진·박미라가 출연한다.

총감독을 맡은 함태선 광주국악협회는 "창극의 진수를 해학과 감동으로 풀어내는 이번 공연은 한 해 동안 지친 관객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극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524-8300. /최명진기자

## 亞문화중심도시, 지속가능한 '길'을 찾다

ACCF, 내일 ACC 개관 7주년 시민대토론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7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미래에 대해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토론회가 펼쳐진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ACCF)은 14일 오후 2시 ACC 국제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환경·사회·경제 가치의 조화'다.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지원센터 사무국장,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 삿포로(민진경 북해도교육대 교수) ▲지속가능

성 관점의 광주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주명옥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기획팀장)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기곤 광주총괄지원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 김지원 본부장(광주문화재단), 윤익 미술문화기획자, 정인서 원장(서구문화원)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부 라운드테이블은 '민·관·정 협의체 역할 및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다. 민관정 기관대표인 김광진 광주시 문화재단 부시장, 지형원 ACCF 회장,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 박종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대표,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 전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최명진기자

## 해바라기의 꿈

### 박유자의 캔버스상생



축다. 몸이 웅숭그러진다. 이렇게 추울 때면 햇빛이 그림자. 날이 추워도 햇빛 아래선 몸이 저절로 퍼진다. 해는 그렇게 우리에게 공정의 기운을 건네준다.

햇빛이 그리는 날, 화실에 퍼질러 앉아 해바라기를 그린다.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을 건어내고 노란 단색조의 해바라기를 주구장창 그린다. 여름날의 그리운 꿈을 노란색으로 채우며 붓질하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는대로 해바라기를 그려온지 올

해로 12년째다.

해마다 다른 해바라기를 그리면서 캔버스 안의 해바라기도 성숙해졌고 나도 성숙해졌다. 어린 마음에서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천개의 씨앗을 보듬으며 안으로 성숙해져가는 해바라기처럼 나도 익어가고 있었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그 기관의 꽃이 해바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초대까지 받게 됐다.

수은주가 똑똑 떨어져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 해바라기 그림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한없는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었으면 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화실에서 해바라기를 붓질해낸다. 해를 품어낸 꽃, 해바라기 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일궈 보자. <오치에서 화가 박유자>



'사랑합니다-희망'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잇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 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 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